12년 日은둔수행 117번째 회향 나와

일본 츄니치 신보, 4월 16일 특별보도

日천태종 난행 중 하나
17세기 후 117명 회향
새 수행자 나올 때까지
다시 난행 수행 들어가

박영빈 객원기자



천태좌주에게서 회향인증서를 받는 코신 스님. 사진출처=교토신문

일본 천태종의 최고 난행(難行) 중 하나로 꼽히는 '12년 은둔행(十二年籠山行)'을 회향한 스님이 나왔다. 12년간 암자의 산문을 벗어나지 않고 은둔하는 이 수행의 회향은 17세기말 제도가 정비된 이래 지금까지 117번째다. 4월 16일, 일본 종교문화 전문지 '츄니치 신보'는 이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일본 천태종에는 4가지 난행이 전해지고 있다. 총본산인 히에이잔(比叡山)의 둘레 30km를 1000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순례하는 '천일회봉행(千日回峰行)', 염불삼매를 중심으로 4종의 삼매를 무기한으로 정진하는 '사종삼매(四種三昧)', 12년간 은둔하며 수행하는 '12년 은둔행', 그리고 재가자들을 위한 '거사림(居士林)'이다.

이 모든 수행은 혹독하기로 유명하다. 사종삼매행은 사망자가 나오기도 해 근대에 한번 중단된 적이 있을 정도다. 재가자를 위한 수행조차 중도 포기자가 다수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2년 은둔수행은 일본 천태종 종조인 사이쵸(最澄) 대사 묘소가 있는 암자인 죠도인(淨土院)을 지키는 수행이다. 사이쵸 대사 암자에서 12년간 좌선과 교학을 연찬하는 수행법으로 정립됐으나 중세에 쇠퇴 한 후 17세기 말 묘소를 지키는 소임이 추가되어 제도가 정비됐다.

은둔행에 지원하는 스님은 끊이지 않았지만 아무나 암자에 들어갈 수 없다.

지원자가 불보살의 영험을 직접적으로 겪는 증표가 나올 때 까지 무기한으로 매일 3천배를 올리며, 증표가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죠도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은둔행자가 일단 암자로 들어서면 산문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이 행자는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이쵸 대사 진영에 공양과 차를 올리고 도량을 청소해야 한다. 이후 좌선과 교학 연찬에 힘쓴다. 수행기간 중에는 신문, 휴대폰, TV 등 외부 소통수단이 모두 차단된다. 이 수행을 하는 이는 진영을 시봉한다는 뜻에서 '시진(侍眞)'이라는 소임명으로 불린다.

17세기부터 시진에 나선 이는 지금까지 117명으로 무사히 12년의 수행을 회향한 이는 81명 뿐이다. 엄격한 계율과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시진 중 25명은 지병과 체력고갈로 입적했다.

이달 초 은둔행을 회향한 타나베 코신 스님은 지난 1일 봉행된 회향식에서 천태좌주(天台座主) 모리카와 코에이 스님으로부터 수행을 성만했음을 인정하는 인증서를 받고 정식으로 수행을 완료했다.

2009년 4월 은둔행에 입재한 스님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신심으로 이겨냈다. 오히려 생각보다 12년이 빨리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고 전했다.

스님은 2002년 출가하면서부터 이 수행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코신 스님은 "어린시절, 2차대전 후 최초로 12년 행을 마친 호리자와 소몬 스님의 수행기를 읽고 '나도 같은 수행을 하고 싶다' 고 생각했다. 책을 읽던 2개월간 부처님을 뵌 것 같은 환희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지는 새로운 시진이 등장할 때 까지 다시금 죠도인에 은둔할 예정이다. 스님은 다시금 은둔에 앞서 "사이쵸 대사께 헌신하며 세계 평화와 코로나19 종결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 폭력에 25만 명 난민 발생"

UN미얀마 특별보고관, 쿠데타 상황 보고



2021년 3월 28일 미얀마 사가잉 지역에서 시민들이 군부의 공격에 맞서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25만 명에 달하는 미얀마인들이 난민 신세에 처했다는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조사가 나왔다.

4월 21일(현지시간) 중동 유력매체 알자지라(Al Jazeera)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톰 앤드류스(Tom Andrews)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SNS를 통해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군부의 폭력으로 인해 최소 737명이 사망하고 3200명 이상이 체포됐다. 특히 약 25만 명의 미얀마인들이 난민 신세에 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이어 "이 같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 세계인들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며 국제 행동을 촉구했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현지 소식통'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진 않았다. 현지 구호단체 '프리버마 레인저스'는 4월 14일 "미얀마군의 지상 공격으로 소수민족 주거지인 카렌주 북부 지역에서 2만 4000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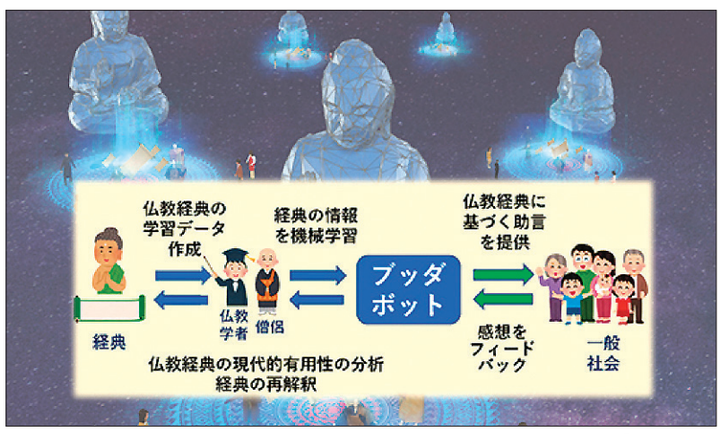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이 언급한 25만 명에는 미얀마 군부로부터 탄압받는 소수민족 외 자국 내 혼란상황으로 집을 떠나거나 생계에 타격을 입은 미얀마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미얀마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Myanmar Now)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최근까지 미얀마 핵심 산업인 의류봉제업 종사자 20만 명 등 대규모 실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 배운 AI, 현대인 고민에 답하다

교토대 연구팀, 불교설법 AI 개발

퀀텀 애널리스틱과의 합작
구글 BERT 알고리즘 적용
정신 상담과 케어 등 활용



붓다봇의 1차 개발 발표모습. 사진출처=렛지 AI

교토대학의 '마음의 미래 연구센터'와 AI서비스 업체인 '퀀텀 애널리스틱'이 합작한 AI연구 그룹이 최근 현대인의 고민과 사회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답변하는 불교 설법 AI '붓다봇'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4월 13일 일본의 인공지능 전문매체인 '렛지 AI'는 이 흥미로운 작업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교토대학의 쿠마타니 세이지 부교수와 퀀텀 애널리스틱의 CEO 후루야 토시카즈는 '붓다봇'의 1차 결과물을 발표 하면서 "아직 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문장의 형태로 답변 할 수 있는 상태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AI 개발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BERT' 알고리즘을 응용, 초기불경 중 일반인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숫타니파타〉서 추출해 그 내용을 AI에게 학습하게 했다. 경전 내용 중 현대의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현대인에게 이해 될 수 있는 법문만을 선정했다.

이후 불교학자와 스님들의 도움으로 질의응답의 형태로 정리한 데이터 시트가 작성됐다.

개발팀은 "붓다봇은 정신건강과 컨설팅, 교육산업 등의 분야에 응용이 기대되고 있으며, 학계, 산업계, 종교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학계는 AI 최후 개척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종교 분야 진출과 불교 경전이 가진 현대적인 가치의 과학적 분석 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계는 노동자의 상담이나 정신건강 케어 분야 진출을 기대한다. 사회생활 속 여러 문제 해결의 방안을 불교적 가치에서 찾아냄으로써 컨설팅에도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종교계는 AI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해 관광불교나 장례불교로 불리는 일본 불교계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를 전한다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팀은 "현재 붓다봇 답변의 정밀도가 낮고, 답변 오용이나 의도적인 악용 등으로 사용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 당분간 학술 이용 및 모니터링의 용도 만으로 공개하며 대중공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팀은 "스님과 사찰 측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종교와 AI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박영빈 기자

역사·생물학자 불교유산 보호 나서

인도 90종 새 서식지 존재…"살아 있는 寶庫"



사진출처=더힌두

역사학자 및 생물학자들이 2000년 된 고대 불교 유적지, 톳라콘다(Thotlakonda)를 보호하기 위해 합심했다. 인도 동남부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州)의 항구도시 비사카퍼트남(Visakhapatnam)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불교 문화적 가치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90종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매체 더힌두(The Hindu)는 4월 20일 "최근 세계유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톳라콘다에 '유산 지킴이'들이 모였다"며 "2000년 된 과거 유적지로 제이쉬리 하탄가디(Jayshree Hatangadi)가 학자들을 이끌고 여정을 떠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유적지가 과연 보존될 수 있을까'란 화두를 던졌다"고 덧붙였다.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가장 큰 도시인 비사카파트남에서 약 15km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한 톳라콘다 불교 단지는 기원전 2세기와 기원후 2세기 사이에 번성해 3세기 말 쇠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톳라콘다는 바비콘다·파뷸라라콘다 불교 복합단지 인근에 나란히 생겨났으며,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 인도 불교를 전파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고대 도시 칼링가(Kalinga) 지역에 속해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온 승려들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기 위해 이곳을 순례했다고 전해진다.

1976년경 인도 군 당국이 해군기지 설립을 위해 측량 작업을 펼치던 중 이곳을 발견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이 지역을 고고학적 유적에 따른 보호 기념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 당국은 이곳에 VIP들을 위한 12헥타르 규모의 게스트하우스 등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받는다.

학자들은 이 지역을 개발 중인 인도 정부에게 반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이날 모였다. 이들은 "톳라콘다 지역은 현재까지 노출된 곳 외에도 더 폭넓은 규모로 확대 보호되어야 한다. 대규모 불교문화 유산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있다"며 "정부가 이 지역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영산재보존회 총회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재보존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총회를 개최하오니 회원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1년 **5**월 **3**일 (음. 3월 22일) **월요일 오후 3시**
▶ **장 소** : 봉원사 설법전
▶ **안 건** : ① 제33회 영산재 봉행에 관한 건
② 영산재 회원 정리에 관한 건
③ 회원 회비에 관한 건
④ 기타사항
▶ **문 의** : **02-392-3008** (보존회 사무국)

※ 보존회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보존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회를 마친 후 회원 정리가 들어갈 예정이오니 회원분들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3회 영산재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분들 위주로 총명지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재보존회 회장 최원허

나이가 들어가며 염불이 점점 힘들어지는 스님들에게

마이크와 2m 떨어져 지극히 작은 염불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 신명나는 본사 견본으로 소리 비교만 해보세요!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 시설들과 장난감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